

EDRC 해외연수 후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기관	CFturbo GmbH
파견기간	3개월
성 명	남대곤 (FAU부산/석사과정)
내 용	
<p>1. EDRC 해외인턴 프로그램(해당 기업)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p> <p>평소 유동해석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캠퍼스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CFturbo라는 터보머신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동명인 개발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진로 및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터보머신 관련 해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2. EDRC 연수기간 동안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나요?</p> <p>오픈폼(OpenFOAM)은 소스가 공개된 유동해석 코드로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CFturbo에서는 설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모델로부터 오픈폼을 이용한 유동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해석의 과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TCFD (Turbomachinery CFD)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p> <p>이를 위해 TCFD의 세팅값에 대해 정리하고 격자세팅에 대한 영향성에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상용툴에서 수행되었던 해석 케이스에 대하여 최대한 동일한 세팅으로 TCFD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p>	
<p>3. 인턴십 기간 동안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이나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p> <p>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적인 부분보다 언어 및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회사는 직원들 인원이 10명 정도되는 작은 회사이고 외국인 학생을 받아본 것이 처음인 상황이라 저를 조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것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일을 하고 그 이상의 관계는 크게 가지지 않는듯한 분위기도 있었던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간다면 그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사람들 간의 대화에 조금씩이라도 써보고 궁금한것들은 많이 물어보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생활 하면 어느정도 극복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4. 인턴십 기간 동안 특별히 보람되었던 점 혹은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p> <p>처음 접하는 아직은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다뤄보면서 많은 에러를 접하고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이 보람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알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나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업무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게 되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p>	

5. 스스로가 느낀 한국과의 차이점 (문화, 기업, 업무방식 등 전반)은 무엇이었나요?

흔히 말하는 외국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로운 근로 방식일 것입니다. 제가 있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지 않아서 사람들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회사임에도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인상 깊었습니다.

6. 인턴십 수행이 향후 학업, 연구 및 취업 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펌프, 블로워, 압축기 등 터보머신의 해석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산업 전반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전공자로서 다양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